

2024
고2 문학
미래엔

2024 고2 문학 미래엔 | 3(1)(1) 제가야산독서당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제가야산독서당」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작가인 최치원의 생애를 <보기>로 제시하고 <보기>와 연관 지어 「제가야산독서당」의 시어 및 시구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지었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 신라 말기의 혼란한 현실에서 벗어나 세속과 단절하려는 태도와 심리를 노래하고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籬山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 봉우리에 울리니

㉡ 사람 말소리가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일부러 ㉣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1. 위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친 듯 내뿜어’는 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는 정치 현실 개혁에 관한 화자의 주장을 의미한다.
- ③ ‘분간하기 어렵네’에는 은거를 결정하기까지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일부러’를 통해 속세와의 단절을 추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세속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흐르는 물’은 덧없이 지나가 버린 속세에서의 기간을 뜻한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토황소격문>을 작성하여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방인의 한계를 절감하고 28세에 신라로 귀국한다. 한림학사의 벼슬을 받은 그는 경세의 뜻을 펼치려고 하였지만 그의 개혁 정책인 <시무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한 최치원은 마흔 살이 되기도 전에 난세를 비판하여 관직을 내놓고 가야산에 은거하였다.

- ① 1행의 ‘미친 듯 내뿜어’는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② 2행의 ‘말소리’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화자의 탄식 소리처럼 들리는군.
- ③ 3행의 ‘시비하는 소리’는 옳은 방향을 지향했던 화자의 이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④ 3행의 ‘들릴까 두려워하기에’는 화자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군.
- ⑤ 4행의 ‘둘러싸게 했네’에서 경세의 뜻을 펼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치원은 당나라의 관리로 있을 때부터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항상 난세를 만나 처신하기가 어려웠고 곤잘 비난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산림과 강해(江海)를 소요하며 누대와 정자를 지어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놓고 책 속에 묻혀서 풍월(風月)을 읊었다.

- 김부식,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 ① ㉠의 주체는 ㉡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고국으로 돌아와 얻은 벼슬을 의미한다.
- ③ ㉡은 화자가 비판하는 세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 때문에 ㉣을 들을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 ⑤ ㉣, ㉢은 긍정적으로, ㉡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최치원은 당나라의 관리로 있을 때부터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항상 난세를 만나 처신하기가 어려웠고 곤잘 비난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산림과 강해(江海)를 소요하며 누대와 정자를 지어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놓고 책 속에 묻혀서 풍월(風月)을 읊었다.

- ① 격렬히 ‘흐르는 물’ 소리로 난세의 시끄러운 일들을 외면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지척에서도’ 서로의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큰소리로 상대를 비난하는 상황을 한탄하고 있군.

- ③ 난세에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시비하는 소리’를 멀리하려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군.
- ④ 현재 자신의 외적 상황은 자신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산림에 묻혀 살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단절을 상징하는 ‘물’을 활용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않는 등 속세와 인연을 끊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한 후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다가 이후 신라로 돌아온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이다. 귀국한 뒤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정치 개혁에 힘을 기울였지만, 신라 말기의 경직된 신분제하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고는 이후 정계에서 물러나 가야산에서 은거하면서 쓴 시가 바로 「제가야산독서당」으로, 그의 만년의 심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① ‘겹겹 봉우리에 울’린다고 한 것은,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당나라 유학 시절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군.
- ② ‘사람 말소리’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화자의 생각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③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렵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를 언급한 것은, 정치 개혁을 원하는 화자의 ‘말소리’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비하는 소리’를 대조시켜 표현한 것이겠군.
- ⑤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고 한 것은, 신라 말기의 경직된 신분제로 인해 화자의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당시 귀족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겠군.

신유형

최치원의 생애와 관련하여 「제가야산독서당」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해 묻는 문제 이외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물'의 이미지에 대해 묻는 문제, 이 작품이 한국 문학에 해당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흐르는 계곡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당대의 혼란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④ 선경후정의 기법으로 시적 자아의 외적 상황과 내면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 ⑤ 칠언 절구(七言絶句) 시로 압운법이 적용되어 1, 2, 4구 끝에 소리가 유사한 글자를 배치하였다.

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
- ② 입신양명을 향한 소망
- ③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 ④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
- ⑤ 사람의 말소리를 막아 버리는 물소리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 ㄴ. 대조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ㄷ.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ㄹ.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미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 ㅁ. 내면세계를 먼저 제시한 후에 외적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 7언 절구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9. 다음은 '물'의 원형적 심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나 있는 '물'의 이미지로 알맞은 것은?

- ① 물에 빠지면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② 물은 만물의 근원이 되면서 생명을 키워 나가는 존재이다.
- ③ 물은 이쪽과 저쪽으로 두 세계를 나누어 놓는 경계가 된다.
- ④ 물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감으로써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 ⑤ 물은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10. 윗글을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쓴 사람이 한국인이다.
- ② 글자로 기록이 남겨져 있다.
- ③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나타내었다.
- ④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나 한글로 번역되었다.
- ⑤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1. <보기>는 한국 문학의 개념을 이야기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보기>의 관점으로 윗글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구운몽>은 어느 나라 문학인가? 그것은 물론 중국 문학이다. 그 취재(取材)가 중국에서라 하여 중국 문학이 아니라, 그 문(文)이 중국문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다만 작자가 조선인일 따름이다. 허난설헌의 시도 중국 문학이다. 한문으로 쓰인 모든 문학 — 최치원, 정몽주 이하로 신위, 황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 문학 제작자였다.

그와 반대로 조선문(朝鮮文)으로 번역된 <삼국지>, <수호지>며 <해왕성>, <부활> 같은 것이 도리어 조선 문학이다. 조선문으로 쓰인 까닭으로. 그러면 우리 선인들의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시문은 전혀 중국 문학일까? 물론! 도저히 조선 문학은 될 수 없을까? 있다. 조선문으로 번역함으로! 그러하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조선의 국토에서 생(生)한 중국 문학이 될 뿐이다.

- 이광수, <조선 문학의 개념>에서

- ① 중국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 ② 한문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 ③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 ④ 작자가 중국 문학 창작자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 ⑤ 한글로 번역이 되었지만 한문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첩첩한 돌 사이로 ㉠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 사람 말소리가 지척에서도 ㉢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적 상황에서 내면세계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작품이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었다.
- ④ 7언 율시의 한시로 1, 2, 4구에 압운을 맞추었다.
- ⑤ 대상을 정적으로 묘사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미친 듯 내뿜어’를 통해 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활유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는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를 의미한다.

③ ‘사람 말소리가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는 물소리가 사람의 말소리를 차단했다는 의미이다.

④ ‘일부러’를 통해 속세와의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속세에 대한 미련은 확인할 수 없다.

⑤ ‘흐르는 물’은 속세와 화자를 단절시키는 대상이다.

2. [정답] ①

‘미친 듯 내뿜어’는 활유법을 통해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인 ‘가야산’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②, ③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는 모두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로, 부정적 대상이다.

④ ‘들릴까 두려워하기에’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⑤ ‘둘러싸게 했네’는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3. [정답] ③

㉠은 속세의 소리로, ㉡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에 해당한다.

① ㉠의 주체는 ‘흐르는 물’ 소리이다.

② ㉠은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 화자가 고국으로 돌아와 얻은 벼슬과는 관계가 없다.

④ 화자는 ㉡, ㉢을 듣기 싫어서 ㉣에게 온 산을 둘러싸도록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 ㉢은 속세의 소리, ㉣은 자연의 소리이므로, ㉡, ㉢은 부정적, ㉣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정답] ②

‘지척에서도’ ‘말소리’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은

물소리가 사람의 말소리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척에서도’ 서로의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큰소리로 상대를 비난하는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① 화자는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 ‘흐르는 물’에게 온 산을 둘러싸도록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난세의 일들을 외면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화자는 난세에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시비하는 소리’를 멀리하고자 ‘흐르는 물’에게 온 산을 둘러싸도록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④ ‘일부러’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외적 상황은 자신의 의도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가 ‘일부러’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 ‘흐르는 물’에게 온 산을 둘러싸도록 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속세와 떨어져 산림에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물’은 속세와 화자를 단절시키는 존재로, <보기>의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기로’ 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5. [정답] ③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렵다고 한 것은, 속세의 소리를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와 연관 지어 해석하자면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와 관련이 있다.

① ‘겁겁 봉우리에 울’린다고 한 것은,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뿐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② ‘사람 말소리’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물소리가 사람의 말소리를 차단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 화자의 생각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④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를 모두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속세의 소리를 의미한다.

⑤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고 한 것은, 신라 말기의 경직된 신분제하에서 화자가 좌절을 경험한 후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6. [정답] ②

윗글에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①, ④ 흐르는 계곡물의 속성을 1, 2행에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3, 4행에 제시하고 있다. 즉 선경후정의 기법으로 외적 상황과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③ 작가 최치원은 이 작품을 통해 통일 신라 말기의 혼란한 현실에서 벗어나 세속과 단절하려는 태도와 심리를 노래하고 있다.

⑤ 윷글은 칠언 절구의 한시이다. 압운은 연이나 행의 일정한 자리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운이나 시어를 배치하는 것으로, 칠언 절구의 한시에서는 주로 1, 2, 4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윷글에서는 ‘巒(만)’, ‘耳(간)’, ‘山(산)’을 통해 운자를 확인할 수 있다.

7. 정답 ②

윗글의 화자는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입신양명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

① 윷글의 1, 2행에서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을 묘사하고 있다.

③, ④, ⑤ 윷글의 화자는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와 같은 속세의 소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속세와의 단절을 위해 ‘흐르는 물’에게 온 산을 둘러싸게 하여 사람의 말소리를 막았다고 말하고 있다.

8. 정답 ①

ㄱ. 윷글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한시이다.

ㄴ. 윷글은 속세의 소리를 의미하는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의미하는 ‘흐르는 물’을 대조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ㄷ. 윷글은 ‘물’이 지닌 단절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ㄹ. 윷글에서 미각적 심상은 확인할 수 없다.

ㅁ. 윷글이 7언 절구 한시인 것은 맞지만, 윷글은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1, 2행에서 외적 상황을, 3, 4행에서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9. 정답 ③

윗글에서 ‘물’은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키는 대상이

다. 따라서 자연과 속세라는 두 세계를 나누어 놓는 경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①, ②,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윷글에서 지닌 ‘물’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10. 정답 ①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언어 예술이다. 윷글은 글을 쓴 주체가 한국인이고, 우리 민족의 생활 현실과 사상,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글이 창제되기 전 한자는 우리글처럼 쓰였으므로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다.

②,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윷글이 한국 문학에 해당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②

<보기>에서는 표기 수단이 중국문(한문)이라면 중국 문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①, ③ <보기>의 ‘그 취재(取材)가 중국에서라 하여 중국 문학이 아니라 그 문(文)이 중국문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윷글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중국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라고 보고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윷글의 작자가 중국 문학 창작자이기 때문에 윷글이 중국 문학인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인 문학은 중국 문학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인 문학의 창작자는 중국 문학 제작자라는 것이다.

⑤ <보기>에서는 한문으로 창작되었다면 한문 문학이라고 보고 있지만, ‘도저히 조선 문학은 될 수 없을까? 있다. 조선문으로 번역함으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문으로 번역하면 조선 문학으로 보고 있다.

12. 정답 ①

윗글은 1, 2행에서 외적 상황을, 3, 4행에서 화자의 내면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②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작품은 향가이고, 윷글은 한자로 표기한 한시이다.

③ 윷글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절구는 4행, 율시는 8행으로 이루어진 한시를 의